

태평양 건너 할아버지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팔로알토에 거주하는 노현우(11)·현아(9) 남매가 7일 화상통화로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린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팔로알토에 거주하는 노민식·지현씨 부부의 현우(11)·현아(9) 남매는 설날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았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기 위해서다. 안방에 앉아 태평양 건너 손주들의 세배를 받은 할아버지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걸렸다.

이처럼 한인들의 명절 트렌드가 진화하고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한국의 가족 친지들과 마주앉아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설움을 ‘화상통화’가 다소 풀어주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십여가지 화상통화 프로그램 중에는 인터넷 전화로 시작해 인기를

끝었던 '스카이프(Skype)', 애플사의 자체 영상통화 프로그램으로 자사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자끼리 사용 가능한 '페이스타임(Facetime)',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탱고(Tango)' '써클(Circle)' '헬로툰>HelloToon)'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무료로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데다 기능과 화질면에서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 화상통화는 비단, 명절 시즌이 아니라도 주재원·유학생·비즈니스 회의·장거리 연애 커플들의 일상 생활에서까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1년차 김현정(32)씨의 경우에도 화상통화는 미국에서 가장 고마운 점 중 하나다. 약속이 없는 주말에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TV모니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큰 화면으로 가족들의 일상을 하루 종일 보며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합병된 스카이프의 경우, 지난해 사용자 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58%)으로 증가,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화상통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영 기자